

특별기획

“기업하기 좋은 김제 만들 터”

정읍시, 저소득층 생계안정 기여 탁월

김제사랑상품권 5% 할인 판매

김제시는 2017년부터 김제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유통할 계획이다.

김제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발행되어 김제시에서만 유통되는 지역화폐로서 그동안 총 120억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권 구입에 따른 할인판매 등 인센티브가 없어 지속적 판매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급변 판매시책의 일환으로 상품권 5% 할인 판매하여 수요 증진 확대는 물론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제사랑상품권 구입 한도를 30만원 한도로 제한해 특정인이 대량 매입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사용처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관내 1,004개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김제시홈페이지에서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음식점, 사행성 오락장 등은 제외된다. /김제=곽태기 기자

이승복 시장 권한대행, 5개기업 찾아 현장토론회 가져

이승복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12일 2017년 정유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관내 민생현장과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정부 3.0의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중시하는 행정에 시민과 함께 그 첫발을 내딛었다.

먼저 김제시 미래 신산업동력원인 지평선산업단지 내 해원에스티(주) 등 5개기업을 찾아가 대표들과 현장 토론회를 갖고 공장견학,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이 권한대행은 토론회에서 “김제시가 전통적인 농업도시에서 신산업도시 성장동력을 갖추게 된 것은 기업 대표님들의 적극적인 투자 덕분이다”라고 하며, “김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자금·인력채용 지원, 애로사항 해결 등에 적극 노력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날 오후에는 용동에 소재한 쌀가



공업체 이택영농조합법인을 찾아 대표브랜드인 ‘지평선 방아짚는날 골드’가 지난해 최우수상을 받아 김제 쌀의 자존심을 다시한번 세운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는 한편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태기 기자

정읍시, 저소득층 생계안정 기여 탁월

지난해 5562개 일자리서 3622명에 일자리 제공

정읍시가 지난해 공공근로형 일자리 5천562개를 창출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에 기여했다.

시는 지난 한 해 공공 근로형사업과 공공근로 성격의 사업으로 모두 347개 사업을 추진했고, 각각 3천622개와 1천940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공근로형 사업으로 16개 사업을 추진, 모두 3천62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의욕을 높이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줬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추진한 공공근로사업은 1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8일간 57개 사업장에서 추진됐다. 이 사업으로 모두 33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또 노인 일자리사업과 2016 하계대학생 아

르바이트사업,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 등 공공근로사업과 비슷한 유형의 한시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5개 사업을 추진했다.

이와 별개로 공공근로 성격의 사업도 추진, 문화재 유지 보수, 재활용 선별장과 매립장 관리 등에 인력을 투입하여 모두 1천94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 제공은 고용 기회 확대와 생계보전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특히 실직자들에게 대한 근본적인 생계안정대책이 되지 못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없는 일부 사업에서 있으나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시적 생계안정에는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부안군, 모자보건사업 지원

부안군은 임신부부터 영유아까지 생애주기별 체계화된 모자보건사업 지원으로 아이 낳고 보육하기 좋은 부안 만들기에 적극 나섰다.

군은 그동안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 저 출산에 대응하는 한편 아이 낳고 보육하기 좋은 부안 만들기를 위해 올해부터 새로운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출산하는 넷째 아이 이상 가정에는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비 지원을 2년 동안 분기별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임신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임신의 행복함과 주변의 관심, 배려를 물론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키는데 집중키로 했다.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금도 지난해 10월부터 대폭 확대해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아이 200만 원, 셋째 아이 600만 원, 넷째 아이 800만 원, 다섯째 아이 이상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유수유 권장을 위해 유축기 대여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읍 ‘뗏다방’ 기승... 관계당국은 뒷짐

단속 손 놓고 있어 대책마련 시급 지적 군 관계자 “수시로 정기점검 하고 있어”

농촌지역 농한기 부안을 중심지에서 방문판매(일명 뗏다방)가 몇 달째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은 뒷짐을 쥐고 있어 시급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들 뗏다방 업주들은 빈 건물을 임시로 빌려놓고 홍보관을 만들어 붐고차 여러 대를 이용,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을 모은 후 값싼 화장지와 플라스틱 통, 바가지 등을 나눠주면서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부당상술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수시로 정기 점검과 매일 매일 현장점검은 물론 민원이 발생 될 때마다 현지를 방문하고 있으나 방문판매 업자들이 과장

로 노인들을 불러모아 각종 생활용품을 허위·과장 광고로 폭리를 취하고 있어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고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뗏다방 업주들은 빈 건물을 임시로 빌려놓고 홍보관을 만들어 붐고차 여러 대를 이용,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을 모은 후 값싼 화장지와 플라스틱 통, 바가지 등을 나눠주면서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부당상술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수시로 정기 점검과 매일 매일 현장점검은 물론 민원이 발생 될 때마다 현지를 방문하고 있으나 방문판매 업자들이 과장

광고나 강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또 “노인들을 울리는 약덕상술은 쉽게 상대방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분장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뗏다방 등이 성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각종 사은품 제공 및 당첨, 공짜상술 등을 제공하면서 무료, 할인, 최저가 판매 등을 빙자한 사업자의 부당상술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안군 관계당국은 취재가 들어가자 뒤늦게 뗏다방 피해를 예방하려고 각 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 1200여 명을 대상으로 뗏다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문자홍보 등에 있으며 영업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화합과 나눔으로 힘찬 출발을”

김제 백구면 주민자치회, 떡국 나눔 행사

김제시 백구면(면장 최니호)이 화합과 나눔의 떡국으로 2017년 정유년 새해가 주민들의 안녕과정이 넘치는 따뜻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힘차게 출발했다.

이번 떡국 나눔잔치는 백구면 주민자치회(위원장 조은희)가 주관한 행사로 백구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들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며 더불어 이장, 기관장 등 주민과의 화합을 계기로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자는 방향으로 기획·추진했다.

이날 주민자치위원들을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껏 끓인 떡국으로 100여명의 주민들과 훈훈한 온정을 나누었으며 또한 떡국떡 200kg를 준비하여 경로당 및 마을 40여개소에 전달하여 훈훈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다. /김제=곽태기 기자

조은희 주민자치위원장 “비록 적은 나눔이지만 주민들과 함께 해서 기쁘게 생각하여 이번행사를 백구면의 화합과 발전에 견인차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다방면으로 위원회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시, 안전신문고 신고제 운영

정읍시가 학교나 생활주변 등에서 주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안전 사례를 신고하는 학생에게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는 안전신문고 신고제를 운영한다.

시는 겨울방학부터 오는 3월 말까지 지역 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1인 당 최대 15시간의 봉사시간을 부여하는 안전신문고 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은 통학로 교통사고 위험,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감전위험 시설물, 못 불출 등 생활 주변의 취약시설물도 신고대상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법 노점 행위,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장치 미흡, 학교 통행로 물건 적치 등 학교 주변의 안전시설물이다.

또 도로·맨홀·보도블록 파손 및 훼손, 안내 표지판 미흡, 보행 안전 위험요인 등 보행·교통 안전과 담벽 붕괴 위험,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감전위험 시설물, 못 불출 등 생활 주변의 취약시설물도 신고대상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 교월동 복지통장 52명 위촉

김제시 교월동(동장 김태환)은 12일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52개 마을 통장을 “복지통장”으로 위촉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6월 동 행정복지센터 내 맞춤형형복지집 설치로 복지허브화를 시행중인 교월동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추진 체계로 복지통장을 재정비하여 활성화하고 마을마다 매일 1가구 이상 지원대상자의 발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제=곽태기 기자

부안소방서 119구조대 집안에 갇힌 아이 신속 구조

부안소방서(서장 강동일)가 아파트 현관문이 잠겨 집안에 갇힌 여자아이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지난 11일 오후 17시 59분께 부안읍에 있는 대림남주골아파트에서 발생한 문 잠금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7층 베란다에서 로프를 이용 6층 사고현장으로 진입 안에 갇힌 3세 여자아이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이 사고는 아파트 현관문의 자동도어락이 오작동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호자가 잠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는 사이 발생했다. 다행히도 부안소방서 119구조대의 신속한 대처와 이웃도민의 도움으로 신고 후 20여 분 만에 사고가 수습되었으며 사고를 당한 아이도 놀란 것을 제외하고 이상이 없었다.

119구조대원은 “자동잠금장치는 열쇠 잠금장치에 비해 문 잠금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평소 관리와 취급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걸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GIFT SET 1: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 750ml 1ea/12% | GIFT SET 4: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 375ml 5ea/13% | GIFT SET 6: 500ml 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 375ml 2ea/13%

TEL : 063-584-9980
www.gangsanwine.com